

양촌 권근선생 유허비 제막식

전북 익산시 입산동 622-24(몽환마을 : 양촌대)에서 권영의 대종원 부총재, 권임하 추진위원장, 권순팔 관서공 종손, 권태수 양촌기념관관리소장, 심신용 시의원, 손문선 前시의원, 문화원장, 도의원, 주민, 마을이장 기관단체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충공 권근선생 유허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익산추밀공파종중이 양촌선생 유허비를 제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이석권 몽환마을 이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후 제막을 했으며 내빈소개, 추진위원장의 경과보고 이어 권임하 추진위원장은 제막식 식사에서 오늘 제막식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훌륭한 성리학자인 양촌 권근선생께서 고려말 1390년도에 익주(현재 익산시 양촌대)에 유배되어 바다 같이 넓은 황등호에 둘러싸인 양촌대에서 귀양살이를 하시면서 선생의 수많은 저서들 중에서 대표되는 국가보물 1136호인 입학도설을 저술하시었습니다.” 이 자랑스럽고 역사적인 양촌대에 선생의 뜻을 널리 알리고 후세들의 교육의 지표로 삼기 위해서 삼성동지역 개발사업비를 투입하여 유허비를 세우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유허비 건립은 익산시청으로부터 지방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받고 몽환마을 이장 이석권씨로부터 부지를 기증받아 지난 3월16일 “신재생지원센터 관련지역 개발사업추진위”(위원장 권임하) 회의를 거쳐 익산시 입산동 622-24부지에 동진석재(사장 김진민)가 공사에 들어가 10월30일 준공되어 11월5일 유허비 제막식을 했다.

양촌 권근선생은 안동권씨 16世로서 추밀공파 6대손이며 1352년(공민왕조)에 출생하여 1409년(공민왕조)에 충성하여 1409년까지 살았고 초명은 진(晉), 자는 가원(可遠), 호는 양촌(陽村),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368년 17세 때 성균관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급제하여 춘추관 검역, 성균관 직장 등을 역임했으며 공민왕이 죽자 정몽주, 정도전 등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배원전명을 주장했으며 좌사의 대부, 성균관 대사성, 지신사 등을 거쳐 1388년(창왕 1) 풍지공거가 되어 이은 등을 뽑았다.

학문적 업적은 주로 입학도설과 오경전견록으로 입학도설은 뒷날 이항 등 여러 학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고, 오경전견록 가운데 예기전견록은 태종이 국비로 편찬을 도와 주자로 간행하게 하고 경연에서 이를 진강하게까지 하였다. 그 밖의 주요저서에는 양촌집, 동현사략, 상대별곡 등이 있다. <권임하 추진위원장>

세 때 성균관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급제하여 춘추관 검역, 성균관 직장 등을 역임했으며 공민왕이 죽자 정몽주, 정도전 등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배원전명을 주장했으며 좌사의 대부, 성균관 대사성, 지신사 등을 거쳐 1388년(창왕 1) 풍지공거가 되어 이은 등을 뽑았다.

학문적 업적은 주로 입학도설과 오경전견록으로 입학도설은 뒷날 이항 등 여러 학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고, 오경전견록 가운데 예기전견록은 태종이 국비로 편찬을 도와 주자로 간행하게 하고 경연에서 이를 진강하게까지 하였다. 그 밖의 주요저서에는 양촌집, 동현사략, 상대별곡 등이 있다. <권임하 추진위원장>

정조공파 대구파친회 유적지 탐사

지난 10월31일 대구파친회(회장 권영일)는 파친 30여명이 경남 산청의 남명(南冥)조식(曹植)선생의 유적을 탐사하였다. 퇴계 이항과 쌍벽을 이루었던 성리학자 남명선생의 생애와 학문, 교육활동, 사상과 신념 등 현실과 실천을 중시하

며 비판정신이 투철한 학풍을 수립하였다는 해설가의 설명이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쌍룡이 서로 맞물려 원을 그리는 쌍용교구의 명당자리에 자리잡은 남사에담촌을 돌아보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우수한 시설물을 기반으로 개발된 동의

보감촌에 둘러 엑스포주제관, 한의학박물관, 약초테마공원 등을 관람하였다. 이날 행사로 파친 간 우의를 돈독히 함은 물론 파친회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총무혁상>

울산원년친목회 가을 아유회



△“낙화암 고관사 선착장” 앞에서

지난 11월 8일 “안동권씨 울산 원년친목회 와 동천친목회”는 합동으로 부부동반 약 35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천장호 출렁다리, 부여낙화암 고관사, 백제문화단지에서 가을아유회를 다녀왔다. 권영목 원년친목회 총무의 사회로 출정식을 시작하였으며 권태룡 원년친목회장과 권혁목 동천친목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양 친목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합동아유회를 통해 처음 시행하는 합동아유회인 만큼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돈독히 하여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하자고 하였다. 이어서 동천친목회 소속인 권명달 울산청장년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양 친목회 총무의 쌍방 회원을 한사람씩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 양친목회원이 이날만큼은 한마음이 되어 일족의 끈끈한 정을 새삼 느끼는 즐겁고 유익한 가을아유회가 되었다. <총무부장 권영목>

서울청장년회 창립22주년 정총



△서울청장년회22주년 기념 케익 절단(중앙: 권영상 초대회장)

서울청장년회는 지난 10월 15일 오후7시 서울여의도 교보삼계탕에서 제22주년 정기총회를 개최, 이날 초대회장 권영상 고문을 비롯해 제8대 권혁용 회장, 9대 권혁창 직전회장, 권영석 서울산악회장 및 ‘회’ 임원진, 족친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진행은 권순용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조태사공 망배(冥拜)이여, 감사패 및 선물증정으로 권기욱(7대 회장, 현 우평코리아 대표이사)고문에 수여되었다. 승호 회장은 서울청장년회의 당면과업은 2018년 전국청장년체제를 서울에서 개최되니 최선을 다할 의지로 준비에 임하겠지만 능력 있는 분이 힘을 합쳐 전통을 계승해 가자고 말했다. 이어 권영상 초대회장의 축

사는 손발이 되어 문사진자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서울회를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묵묵히 이룬 자부심 하나만으로 굳은일, 힘든 일을 마다 않고 자발적으로 헌신하신 족친 회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동권씨는 태사공 할아버님께서 사성(賜姓)을 받으신지 1086년이 됩니다. 안동권문은 서기929년 시조님의 병산대첩의 전공으로, 병기탈권(炳幾達權) 즉 기미(幾微)를 받게 살피 권도(權道)에 통달하다는 뜻으로 안동권씨로 사상을 받은 이래 권도(權道)를 지키며 그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권씨는, 대대로 후손이 한

결같이 성품이 곧고 어떤 일에 대처하여 비굴하거나 저열하지 않아, 우리 겨레의 중심적 기질로 바탕을 이루며 1천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주역으로 많은 역할을 해 왔고, 오늘 날에도 많은 인물이 신문이나 방송,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원여러분! 우리 서울회는 안동권문의 영광을 위해서 배전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송조이님을 구원을 위한 축사를 했다. 이외도 이날 축사로 핵융,혁창 직전회장장과 영석 서울산악회 회장 등이 축하인사했다. 권순용 인재 영입위원장, 권기진 부산경찰청장, 권광택 청주청장년대회장, 권대능 안동청장년회장 등이 축전을 보냈다. 이어 사무국장의 경과보고, 권오준 감사의 감사보고를 마치고, 임원선출로 현 승호 회장이 1년 연임으로 의결되었으며 혁창 직전회장은 정관 수정을 건의하여 일부가 수정되었다. 회의후 만찬과 함께 신입족친 회원소개 및 인사로 권신원(前목포과대학대 총장, 現,글로벌뉴스통신통계연구소장)씨 인사로 총회행사를 산회하였다. 이날 총회 행사 잔조로 권오덕 변호사 기념타올과 승호 회장이 식사를 제공하였다. <권범준 기자>

안동청무회 청량산 단합행사



△안동청무회가 단합행사(山行)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동청무회는 지난 19월 17일 회원 80여명이 전세버스편으로 청량산 도립공원 축출봉을 등산하면서 올해 청무회 단합행사를 가졌다. 이날 권기인 회장, 기억전회장, 석순 경제산업국장 각 인사가 있었다.

청무회는 매년 산행으로 단합행사를 하면서 족친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청무회의 정체성 확립과 회원 상호간에 족의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있다. 또한 청무회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 권기인 △부회장 : 권순원, 오순 △총무 : 권용대 <권혁세 기자>

권혁운 (주)아이에스동서회창 청년펀드 3억 기부

건설·건축자재 종합기업 (주)아이에스동서(회장 권혁운)이 지난 27일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청년희망펀드’에 3억 원을 기탁했다. 청년희망펀드에 기탁된 기부금은 청년취업기회 확대 및 구직 애

로원인 해소·민간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권 회장은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업이 먼저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아이에스동서는 그동안 사



회복지공모도금회에 3억원을 기부하고 유니세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을 후원 및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편>

‘돌연변이’ 권오광 감독

‘돌연변이’로 장편영화 신고식을 치른 권오광 감독이 ‘타짜3’ 메가폰을 잡는다. 16일 영화계에 따르면 권오광 감독은 최근 ‘타짜3’ 연출을 맡기로 결정하고 세부작업에 돌입했다.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권오광 감독은 ‘돌연변이’로 영화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신예. ‘돌연변이’는 제약회사 임상실험에 참여

했다가 생선인간이 된 청년을 통해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짚은 영화. 토론토론회제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했다. 권오광 감독은 ‘돌연변이’ 이후 씨언더스FNH로부터 ‘타짜3’ 연출 제안을 받고 시나리오 수정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만 화백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타짜’는 2006년 최동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2014년에 개봉, 401만명을 불러모았다. ‘타짜3-원아이 드잭’은 1편에 잠깐 등장한 전설적인 타짜 짜기의 아들이 카드 게임을 배우면서 타짜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권감독은 시나리오 각색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년 촬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전형화 기자 인용>

자랑스러운 권문의 딸

안동시 경동로 977-5에 거주하고 있는 권금희 여사는 지난 10월 17일 충북 영동읍 레인보우 영동도서관에서 개최된 제3회 감고을 전국 시낭송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사)문학사랑협회의가 수여한 시낭송가 인증서도 함께 받았다. 권금희 여사는(52, 의



성, 34세, 동정공파) 안동시 시설공단 학가산 온천에 근무하면서 비빔밥을 내어 서울과 지방에서 열린 각종 시낭송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직장에서도 모범적 근무를 하고있다. <권혁세 기자>

권기창 안동대 교수 부임

권기창씨(54, 36세 정조공파)가 지난 8월 1일 안동대학교 교수로 부임했다. 권교수는 안동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대구대 사회개발대학원(지역개발학과전자정보



처리)경영학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이어 영남대학교 통계학과(계산학)이 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권혁세 기자>

大宗院 運營委員選任

안동권씨 대종원은 10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권경석 사무총장이 사임함에 따라 대종원 副總裁 權景奭 副總裁의 경력은 육사 19기로 한국의국어대학교 경영학 석사, 국방부 육군본부 20여년 근무, 軍의 00작전으로 대통령표창,



보국훈장 등을 받았으며, 현재 樞密公派大宗會會長을 맡고 있다. 권문에 종사한 지난 10 여년간 사무총장에 보임되어 안동권씨의 양대기구 통합과 대동단결에 기여한바가 대대하였다.

辭 令

성명 權五運 命 : 대종원 사무총장 2015.11.1일자 위 사람을 안동권씨 대종원 사무총장에 보함 2015년 11월 1일부 大宗院 總裁 權正達 신임 권오운 사무총장은 건국대학교 및 동 대학원 행정학 석사, 노



동부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국가 공무원으로 33년 근무 부이사관, 흥조근정훈장 수훈, (사)바른선거시민모임 중앙회회장을 지내고, 현재 체코 부르노국립예술대학교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현빈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권영훈

- 前 국세청 법인세과장·조사2과장
- 前 삼성세무서장
- 안동권씨 대종원 감사
- 복야공파 34世 경복포항

고객의 성공을 돕는 것,

현빈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무실 역도

강남역 1번출구 또는 역삼역 3번출구 도보5분

1층 SK텔레콤 건물 내(성곡빌딩)7층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7층(역삼동, 성곡빌딩)

(구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22 성곡빌딩 7층)

대표전화 : 02)538-2244 / 팩스 : 02)562-7007